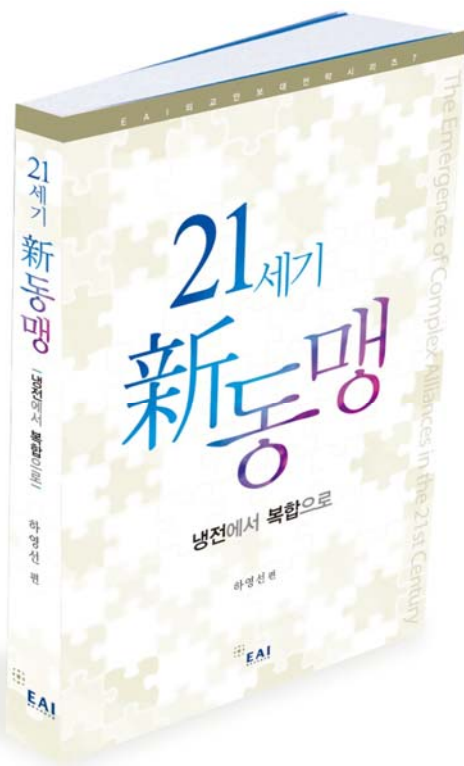


“복합동맹, 21세기 새로운 국가 짝짓기”

복합의 세기를 만나 새로운 삶과 죽음의 짝짓기가 시작되었다.
변화를 제대로 읽고 삶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날 한국국제정치의 대표적 실천과제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짝짓기를 복합동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주인공과 무대가 냉전질서에 비해서 눈에 두드러지게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세계무대를 주도할 수 없게 됐다. 무대의 주인공들은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무대 자체도 딱딱한 군사와 경제만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부드럽고 화려해지고 있다. 복합의 짝짓기는 불가피하다.



E A I 외 교 안 보 대 전 략 시 리 즈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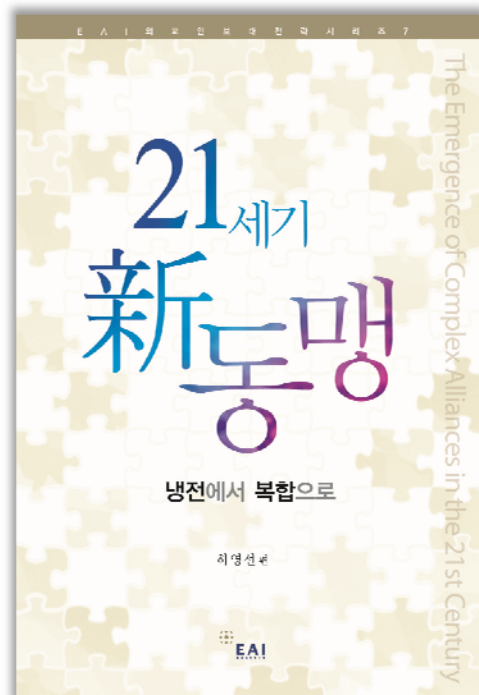
편저자_ 하영선
출판사_ 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_ 2010년 10월 27일 1쇄
판형_ 신국판
쪽수_ 394쪽
가격_ 18,000원
ISBN_ 978-89-92395-10-6 93340

문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The Emergence of Complex Alliances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Young-Sun Ha

“복합의 21세기를 읽어라”

오늘날 우리는 복합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냉전시대 미소 중심의 양극과 탈냉전 미국 독주의 단극, 그리고 오늘날 팩스 아메리카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새로운 중진 세력의 등장은 G8에 이어 G20으로 상징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다. 변화는 단순히 다극화에 머물지 않는다. 국제기구,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국제비정부기구나 다국적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 지방정부나 시민조직 등이 국제 무대에 실질적 행위자로 등장함으로써 복합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등장인물뿐이겠는가? 국제정치의 무대 또한 다차원화, 복합화 되고 있다. 과거의 안보나 경제 중심의 단순무대에서 벗어나 안보 · 번영 · 환경 · 문화의 중앙무대, 정보지식의 기반무대, 통치의 상층무대로 이루어진 3중 복합무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복합의 시대는 단순히 갈등과 협력 중의 택일이 아니라, 갈등과 협력, 위기와 발전, 협력과 번영 그리고 공생이 서로 얹히고 설켜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더 이상 ‘적과 동지’ 식의 냉전적 사고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

“21세기 동맹, 생존과 번영의 복합 그물망 짜기”

복합의 시대에 동맹전략의 해법은 다양한 행위자와 중층적 이슈들을 망라하는 그물망식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 일변도, 혹은 군사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복합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여전히 냉전적 분단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복합 그물망 동맹전략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존전략에서 가장 큰 축이었던 한미 군사동맹을 21세기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군사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주인공들과 중층적 무대를 포괄하도록 그물망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그물망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물망을 최대한 넓혀서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를 사실상 21세기형 동맹관계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또한 복합 그물망 속에 엮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신동맹의 그물망 속에 북한이 정상적으로 위치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그물망 치기와 함께 치밀하고도 견고한 국내 그물망이 필수적이다.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외교안보연구팀인 “국가안보패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집단 토론과 연구의 결과를 묶어 마침내 세 번째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EAI 국가안보패널에 소속된 학자 총 11인이 참여한 이 책은 오늘날 복합동맹의 등장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한반도의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복합동맹과 동맹의 역사에 대한 총론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신동맹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및 중동지역의 동맹정책과 변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냉전의 유산이 해결되지 않은 분단의 현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치 속에서, 피아의 구분이 아닌 중층적 복합동맹이라는 새로운 대외 구상은 필수적이다. 21세기의 생존과 번영을 지탱해 줄 “복합”의 화두를 던짐으로써 보다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와 함께 생산적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 차

1부 서序

1장 21세기 복합동맹 _형성과 전개 | 하영선

2장 동맹의 역사 | 전재성

2부 미국

3장 21세기 미국의 동맹질서 구상 _역사를 통한 조망 | 마상운

4장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주요 아젠다 | 이상현

5장 미국의 안보실행전략 | 이동선

6장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동맹정책 | 신성호

3부 동아시아

7장 21세기 일본의 동맹전략 _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 손열

8장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_변화와 지속 | 조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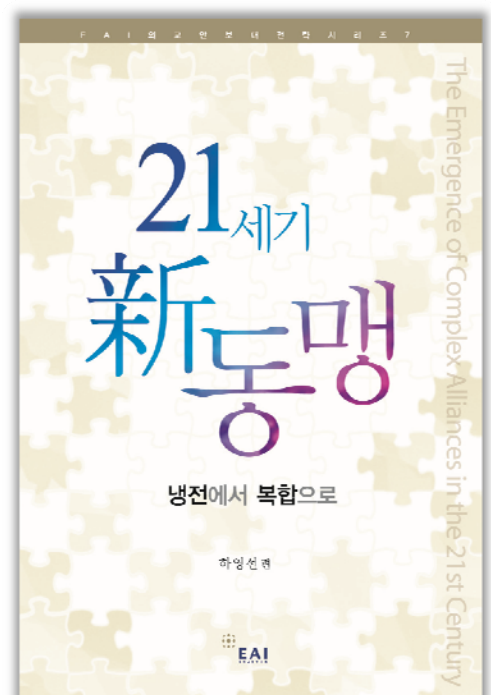
4부 유럽과 중동

9장 21세기 미국과 유럽 동맹관계의 변환 | 김준석

10장 21세기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 | 신범식

11장 중동 지역의 세계관과 동맹 | 인남식

부록



□ 필자 약력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역사적 재조명 : 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국제정치논총〉, 2008),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국제지역연구〉, 2009), “유럽정체성의 규범적 기초” (〈국제지역연구〉, 2009) 등이 있다.

마상운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및 국제교류처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친 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196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분야는 미국외교정책, 한미관계, 냉전외교사이며, 최근에는 미국의 동맹관계를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부시-블레어 시기의 미영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Alliance for Self-reliance: ROK-US Security Relations, 1968-71” (*Journal of American Studies*, 2007),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세계정치〉, 2008), “From ‘March North’ to Nation-building: Interplay of US Policy and South Korean Politics during the Early 1960s” (*Korea Journal*, 2009), “테탕트기의 한미갈등 : 닉슨, 카터와 박정희”(공저) (〈역사비평〉, 2009) 등이 있다.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교 외국인연구원, 와세다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연구분야는 일본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이며, 최근 저술로는 “동아시아 경합하는 국제사회구상”(〈세계정치〉, 2009), “소프트파워의 정치: 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2009), “Japan Between Alliance and Community”(East Asia Institute Issue Briefing, 2009),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Shock, Universal Values and East Asian Community” (*Asian Survey* 50, 3. 2010) 등이 있다.

신범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슬라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러시아 외교정책과 유라시아 국제관계이다. 주요 논저로는 《21세기 유라시아도전과 국제관계》(편저)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러시아의 선택 :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 · 시장 · 사회의 변화》(공저) (서울 : 서울대학교, 2006),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공저) (Carlisle: US Army War College, 2007), “Russia’s Perspectives 390 on International Politics” (*Acta Slavica Iaponica*, 2009) 등이 있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성호 교수는 미국 터프츠대학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APCSS) 연구교수,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워싱턴 East West Center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안보와 국가전략, 한미동맹과 한반도, 인구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Demographic Peace: Decreasing and Aging Population and Its Impact on Northeast Asian Secu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9 Annual Meeting*, 2009), “A Smart Alliance in the Age of Complexity: ROK-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East Asia Institute Issue Briefing*, 2009), “부시와 오바마 : ‘핵 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국가전략〉, 2009) 등이 있다.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소재 East West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이론이다.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 (New York: Routledge, 2008)가 있으며, 주요 학술논문으로는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07)와 “Democratization and Alliance Policy: A Comparison of Taiwan and the Philippin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07) 등이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상현 박사는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국제정치와 안보,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논저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공저)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공저) (파주 : 한울, 2008),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공저) (성남 : 세종연구소, 2008), 《한미동맹의 변환》 (공저) (성남 : 세종연구소, 2008),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Vision of ‘Global Korea’ and Its Challenges”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09),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9), 《외교환경과 한반도》 (공저) (성남 : 세종연구소, 2009), 《조정기의 한미동맹 : 2003-2008》 (공저)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등이 있다.

인남식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중동 이슬람 지역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더럼대학교(University of Durham)에서 중동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외에도 카이로 알아흐람(AI-Ahram) 신문사 정치전략연구소(Centre For Political Science and Strategic Studies)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다. 주요 저서는 《국제분쟁의 이해》 (2000),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의 전망과 함의》 (2004) 외 다수가 있고 연구분야는 중동정치 및 테러리즘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평화협정”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9),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미-이-팔관계” (JPI, 세계평화지수연구, 2010) 등이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자주외교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8),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2008),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2009),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2010) 등이 있다.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 교수는 1999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중국 남개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서울 : 나남, 2000),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서울 : 폴리테이아,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파주 : 나남, 2006),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Development and Tran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 나남, 2009) 등이 있다. 최근에는 주로 중국의 의회제도, 법치(法治), 국가-사회관계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조선일보의 객원 논설위원,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하영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편저서로는 《국제화와 세계화 : 한국, 중국, 일본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 (서울 : 집문당, 2000), 《21세기 평화학》 (서울 : 풀빛, 2002),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서울 : 풀빛, 2004),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파주 : 나남, 2004),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동아시아공동체》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8)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